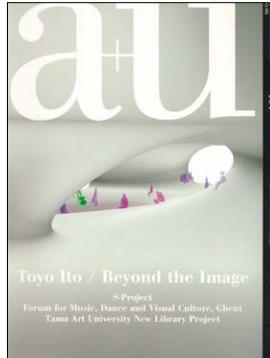


a+u

2005년 6월호

이토오 토요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무언가를 갈망하며 조바심 내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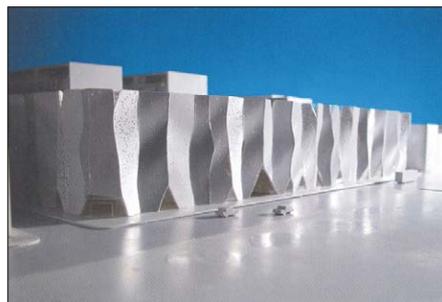


‘다음에는 어떠한 프로젝트를 보여줄 것인가’ 하는 기대감을 갖게 만든다. 그리고 그 기대 이상의 작품을 우리 눈앞에 선보여 왔다. 무엇이 이 건축가로 하여금 우리들을 매료시키게 만드는가? 프로젝트 규모에 상관없이 어느 작품이나 동일한 질과 긴장감, 즐거움과 자연스런 자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미학에 기반한 아름다움, 순수한 소박함, 완전한 지성 그리고 완성된 기술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그의 최근 계획안(S-프로젝트, 겐트시 문화포럼, 타마미술대학 신도서관)을 중심으로 그가 제안하는 새로운 발상들을 소개하고 있다.

■ S-프로젝트

기울어진 기둥

S-프로젝트는 영국 스코트랜드 중심도시에 건설될 예정인 백화점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의 클라이언트인 이 백화점은 ‘퓨처시스템’이 설계한 것으로 잘 알려진 버밍햄의 점포를 가지고 있



S-프로젝트

는 바로 그 백화점이다. 이와 같은 혁신적인 백화점 디자인을 추구하게 된 것은 이 백화점 디렉터의 역할이 컸다. 이탈리아인인 그는 건축에 매우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토오 토요에게는 그가 설계한 ‘센다이 미디어테크’를 보고 난 후 ‘이와 같은 백화점이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후 설계를 의뢰하게 되었다.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요구받은 조건은 8m에서 10m정도의 균일한 스패를 지닌 실내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또한 건물의 높이는 약 20m에서 25m에 불과했지만 길이는 무려 100m를 넘는 규모로서 주변의 건물에 비해 상당히 커다란 볼륨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에 시 당국에서는 가능한 한 주변 건물에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건물의 입면을 수직으로 분절해 줄 것을 요청받은 상태였다. 백화점 건축의 특성상 각 점포의 인테리어 디자인은 입점자의 재량에 따라 각기 따로 진행되므로 결국 건축에서 중요해지는 부분은 외관의 디자인, 다시 말해 도시의 가로와 백화점 건물간의 관계 맺기 정도였다. 여기서 이토오는 ‘기울어진 기둥’에 대한 컨셉을 내놓았다. 기둥의 간격을 균질하게 하면서도 기둥의 각도를 수직에서 조금씩 기울여 내부공간에 변화를 주고, 외부의 입면 또한 이와 같은 기울어짐을 그대로 반영한 기울어진 벽면들로 구성하는 것이었다. 기울어진 기둥에 의한 공간은 사무소 주변의 상업시설에서의 실물축척의 목업(mock-up)테스트를 한 결과 점포의 인테리어 디자인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울어진 기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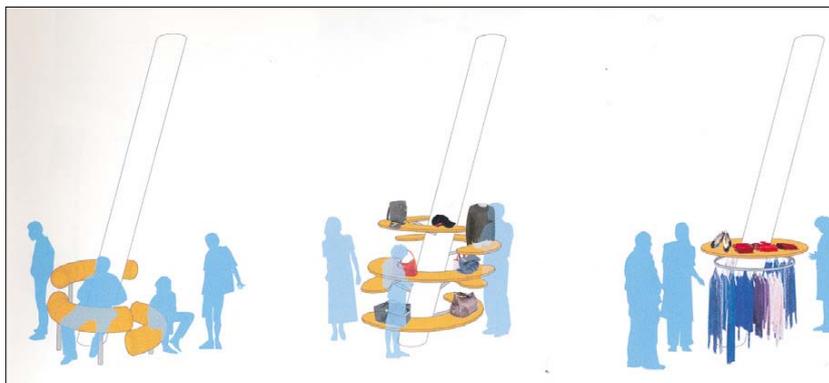


기울어진 기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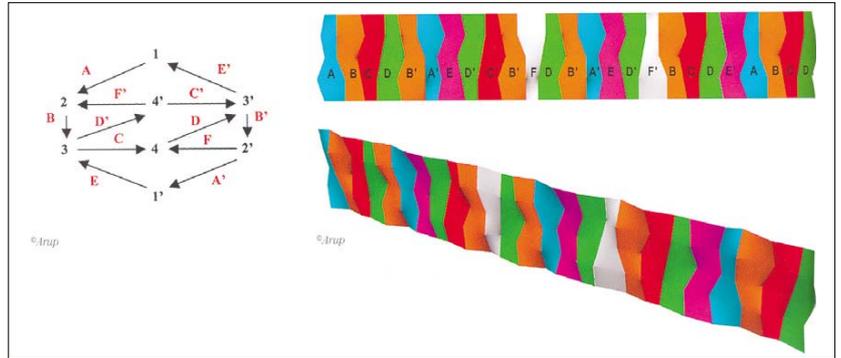
지 않는 평범한 인테리어 디자인은 공간의 잠재력을 살리지 못한 재미없는 것이 되어 버리고 만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처럼 기울어진 기둥들은 백화점 점포의 인테리어를 담당한 디자이너들에게도 상당한 자극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기울어진 기둥의 실내공간은 단지 건물 구조체의 변화가 아니라 백화점 전체 공간에 신선한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폭제가 된 것이다.

애럽(Arup)의 세실(Cecil)과의 협동작업

S-프로젝트는 세계적인 구조설계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애럽(Arup)의 세실 바몬드(Cecil Balmond)와의 협동작업에 의해 이루어졌다. '유동적인 세계에서 사물을 고정시키는 방법'은 이토오와 세실 모두의 공통적인 관심사이지만 세실은 이토오의 설계에 대해 구조적 해결 뿐만 아니라 설계에 수학적 질서를 갖출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설계의 완성도를 한 차원 끌어 올려주었다. 이와 같은 세실의 역할은 이토오의 사무실에서 하나의 설계안에 대해 검토를 요구하면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 10배 이상의 실현 가능한 구조적 제안을 보내올 정도로 세실의 팀이 지닌 넘치는 창의력에 의해 가능했다. 기울어진 기둥에 대해서는 세실이 고안해낸 'ULNAS SPIRAL'이란 알고리즘을 통해 균형잡힌 구조로 완성시켰으며, 여러 조각으로 분절된 입면의 디자인도 총 6장의 패널조각을 위아래를 뒤집어가며 결합시키면 마치 각기 다른 조각들이 맞추어져 있는 모습이 되도록 디자인을 정리해 주었다.



기울어진 기둥의 실내공간



'ULNAS SPIRAL'이란 알고리즘을 통한 균형잡힌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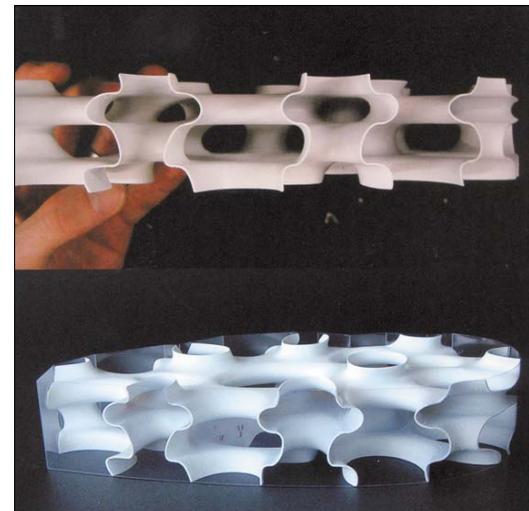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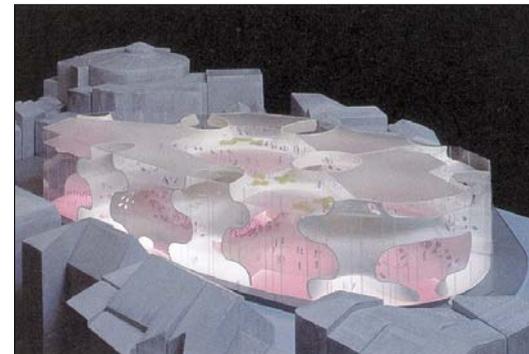
불안정한 상태가 갖는 밸런스와 다이내미즘

이토오는 자신의 건축을 포함한 현대건축이 갖는 다이내믹한 형태와 공간의 성격을 인간의 신체 상태에 따라 나타나는 밸런스의 차이에 비유해 설명한다. 아무런 움직임 없이 정지한 상태로 서 있는 인간의 신체는 좌우대칭이며 가장 밸런스가 좋은 상태이지만 인간의 신체가 갖는 밸런스라는 것은 이와 같은 상태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간의 신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움직임과 동시에 또 다른 밸런스가 생겨나며 그 밸런스가 차례 차례로 변화해가며 다이내믹한 운동이 가능하게 된다. 즉 움직이고 있는 신체가 지니고 있는 역동적인 밸런스가 현대 건축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라는 것이다. 불안정한 상태의 밸런스를 수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종래의 정적인(static)인 밸런스에 비해 압도적으로 복잡한 것이지만 해석의 기술이 진보되었다는 점이 현대 건축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토오도 세실과

같은 훌륭한 엔지니어들의 도움으로 그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또한 더욱 훌륭한 것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 겐트市 문화포럼

겐트市 문화포럼은 현상설계공모에 제출했던 작품이다. 데덜란드의 겐트시에 세워질



겐트市 문화포럼

1,800석 규모의 콘서트홀을 중심으로 한 무용과 퍼포밍아트를 위한 시설이다. 네덜란드의 건축가들과 협동작업으로 이루어진 이 콘서트홀에서는 기존의 콘서트홀 건축에 대한 고정관념을 모두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형식의 건물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비록 현상설계에서 이기지 못하더라도 마음껏 실험적인 작품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이토오팀의 의지였다. 설계안은 정말로 혁신적인 것이었으며, 당선은 되지 않았다. 설계안은 기존의 틀에 짜여진 듯한 콘서트홀의 형식에서 보다 자유도가 높은 공연장 공간을 제안하고 있다. 길거리 공연이나 야외무대에서 느낄 수 있는 느낌을 부여하기 위해 초기의 컨셉모형은 골목길들이 층층이 쌓여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이와 같은 컨셉은 최종적으로 두 종류의 튜브가 서로 굴곡을 주고 받으며 내부와 외부공간을 번갈아만들어가는 모습으로 완성되었다.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구분이 모호하고 벽과 바닥, 천정의 구분이 모호하며, 구조체와 공간의 구획을 위한 구조물이 통합된 공간에서 공간의 한 조각 조각들은 각기 다른 인간의 활동을 담아내는 장치가 되고 있다.

■ 타미미술대학 신도서관

타미미술대학의 도서관 프로젝트는 2004년 봄부터 설계가 시작된 것으로서 이 대학은 이토오가 객원교수를 맡고 있는 학교이기도 하다. 새로운 도서관은 전교생의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했다. 이에



타미미술대학 신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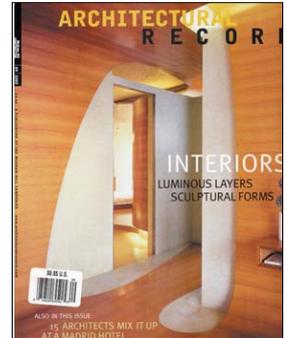
이토오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만남의 기회를 높이기 위해 도서관의 층수를 줄이고자 하였다. 최초에는 상당히 많은 대지면적을 차지하는 1층으로 된 안을 제시하였으나 학교내 녹지 공간을 보전하고자 하는 학교측의 요구로 최종적으로는 2층으로 된 안으로 확정되었다. 도서관의 공간은 폭이 서로 다른 아치로 구성되어 있다. 아치라는 모티프를 사용한 것은 프랑스 파리의 국립도서관이 같은 이미지, 즉 근대이전의 도서관이 지니고 있던 지성, 지식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려는 의도 또한 지니고 있다. 다만 보통의 아치를 사용한 건물과 다른 점은 아치가 지탱하는 스패의 길이가 폭넓게 변화한다는 점이다. 반복되는 주제를 사용하면서 거기에 약간의 변화를 주는 수법은 여기서 소개한 3개의 프로젝트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이토오의 수법이다. S-프로젝트에서는 균질한 기둥렬에서 각도를 조금씩 비트는 수법을 사용했으며, 겐트시의 프로젝트에서는 동일한 형태의 모델을 사용하되 그 스케일에 변화를 주었다면 타미미술대학의 프로젝트에서는 동일한 형식언어, 즉 아치에서 그 폭에 변화를 주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3개의 프로젝트는 그 표현의 방식은 모두 다르지만 '움직임이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에는 공통의 방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그의 작품 성향은 과거 '센다이미디어테크'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센다이미디어테크 이래로 이토오는 매 작품마다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그는 이 과정이 본인 스스로가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과정일지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 앞으로의 이토오의 활동이 기대되는 것도 그의 새로움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과 실험정신이 아직도 꿈틀거리며 살아 움직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글/강상훈/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Architectural Record

2005년 9월호

이번호는 인테리어 특집으로 꾸며졌다. 15명의 건축가가 호텔의 객실 및 각 공용 공간을 각각 맡아서 디자



인한 마드리드의 Puerta America Hotel과 뉴욕 공립학교 도서관 설립 프로젝트가 상세하게 다뤄졌다. 아울러 2005년 Architectural Record가 선정한 인테리어 작품이 소개되었다.

■ 15명의 건축가가 공동 작업한 마드리드 호텔

Zaha Hadid, Rond Arad, Norman Foster, David Chipperfield 등이 이 호텔 인테리어 프로젝트에 참여한 스타 팀의 일원이다. 그 외에도 아라타 이소자키는 타니자키 준이치로의 '음예공간예찬'에서 영감을 얻어 삼나무로 만들어진 욕조와 샤워실이 딸린 '검은 방'을 디자인 하였다. Plazma Studio는 칼리 가리 박사의 밀실을 꿈꾸며, 홀 및 로비 공간을



15명의 건축가가 공동 작업한 마드리드 호텔

스테인리스 판으로 감싸고 판 사이사이 LED 조명을 심어 놓았다. 두드러지는 것은 Zaha Hadid의 랜드스케이프를 펼쳐놓은 듯한 광택 나는 곡면으로 감싼 객실인데, 'solid-surface'라고 불리는 아크릴 마감으로 이루어진 곡면으로서 각 방은 백색, 검정색, 진홍색 중 한가지 색으로 이루어져있다. Chipperfield의 따뜻한 분위기의 객실은 Jean Nouvel의 객실과 대조를 보이는데, 테라코타 바닥과 푸르스름한 천장캐노피가 특징적이다. Jean Nouvel이 디자인한 객실에는 커다란 욕조가 유리 슬라이딩 벽을 사이에 두고 거실에 면해 있다. 이 유리벽에는 아라키 노부요시와 알랭 플레쉴레의 사진 작품이 전시되어 관음증적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전반적인 디자인 분위기는 적극적으로 성적이면서도 유희적인 것을 어필한다. 하디드가 디자인한 각 객실문 앞에는 LED 조명이 객실 번호와 함께 'DO NOT DISTURB'라고 적힌 사인을 밝히고 있다. 또한 예로 누벨의 화장실에서 김이 오르면 유리 벽의 사진이 나타난다. 작가 Jason Bruges와 공동으로 작업한 Kathryn Findlay의 복도 벽 'memory wall'에 박혀있는 땡땡이 전구들은 지나가는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점멸한다. 최첨단의 인테리어와는 별개로, 아마도 이 호텔의 가장 큰 결점은 너무나 평범한 상업적인 건축물의 외관 그 자체이다.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 인테리어 스타일들과는 어떤 연관성도 갖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지상 1층 부분은 계획적으로도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 Jean



로빈 후드 재단의 도서관 프로젝트

Nouvel은 이 호텔 건축을 담당한 SGA Estudio가 단순히 파사드에 옷만 입히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그것은 마치 마드리드의 디자이너 Teresa Sapey의 주차장 슈퍼그래픽 작업과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스타 작가들의 인테리어 작업 덕분에, 공항과 마드리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변에 위치한 이 호텔은 매력적이지 않은 장소에서 진정한 목적지로 성격이 바뀌게 되었다.

■ 로빈 후드 재단의 도서관 프로젝트

뉴욕시 교육부의 협조로 만들어진 로빈 후드 재단은 뉴욕의 공립 학교 도서관을 리노베이션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도서관은 학교의 약 5%의 물리적 공간을 차지하지만, 그것이 전체 학교에 미치는 영향은 100%에 가깝다. 이 도서관 개혁 프로젝트에 참여한 건축가들은 어떤 것을 디자인하려 하기 전에 학생들과 시설을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Tsao & Mckwon Architect의 파트너인 Calvin Tsao는 도서관의 의미를 다시 정의 하였다. 그리고 학생이라는 특수한 그룹을 위한 시설의 의미를 기술적으로, 사회적으로 재정의하였다. 건축가들은 조용하고 책을 읽는 사적인 공간으로서의 전통적인 도서관에서 벗어나 집단적인 배움의 장소로서 이 장소를 만들었다. 아이들이 모여서 컴퓨터로 함께 배울 수도 있으며, 발표도 할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하였다. 또한 도서관은 세계와 접촉할 수 있는 미디어 센터도 되어야 한다. 공동 작업과 상호 학습은 아이들로 하여금 서로 신뢰를 키울 수 있도록 하므로 이러한 도서관은 극장이나 시청의 전통적인 중심적 장소의 특징을 띠게 될 것이다.

■ Record Interior

“수수께끼에 싸인 미스터리”라는 말처럼 Record Interior 2005에 소개된 작품들의 특징은 다중의 커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본 센다이의 Aoba-tei 레스토랑도 그 예로서



Neil Denari의 Endeavor Talent Agency

Hotosi Abe는 스틸 캡슐과 추상화된 나무 이미지가 편칭된 막을 삽입함으로써 무미건조한 업무용 빌딩을 변신시켰다. 그 효과는 동트는 새벽의 숲속과 같은 이미지를 환기시키는 것이었다. 또 다른 특징으로서는 날카로운 모서리나 상자곽의 직각면은 곡면 뒤로 사라져서 벽은 천장, 바닥과 하나의 면으로 성형되었다. Bizarre Boutique에서 Randy Brown Architects는 종이 한 장으로 접은 종이 접기처럼 이음새 없는 공간을 만들어 내었다. Neil Denari의 Endeavor Talent Agency는 벽면과 천장이 온통 백색 페인트로 덮여 씩어졌으며, 강렬한 이미지의 그래픽이 일부 벽면에 이용되었다. 베이징의 고층 아파트먼트인 Template House에서도 Michel Saee는 바닥에서 천장까지를 체리목으로 이뤄진 감각적인 곡면벽으로 감쌌다.

(글/최원준/공학박사/(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재실장)